

출 장 자	소 속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이수연
출장기간	2016.3.13(일) – 2016.3.19.(토)		출장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		
출장목적	□ 제 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경비	약 420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명		회의내용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①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인지적 이행을 위한 핵심 전략 ② 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인지적 이행을 위한 참여 및 파트너십 ③ 여성·여아 대상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데이터 격차 및 방법론적 문제				

출장 보고서

2016. 3.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매년 총회와 전문가 패널, 그리고 부대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6년 60차 회기에서는 여성 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 그리고 여성·여아 대상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데이터 격차 및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다루었음
-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의 ①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제도의 정비와 ②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규범적·법률적·정책적 체제 강화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나. 목적

-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여 여성가족부를 지원하고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2

출장 기간 및 출장지, 출장자

가. 출장기간: 2016년 3월 13일(일) – 3월 19일(토) [4박 5일]

나. 출장지: 뉴욕 유엔본부

다. 출장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가족평등사회연구실),

II

세부일정 및 논의내용

1

세부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3/13 (일)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출국 (서울 10:05 --> 뉴욕 11:00 KE 081편)	서울->뉴욕
3/14 (월)	○ 유엔 60차 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참석 10:00 - 18:00	뉴욕
3/15 (화)	○ 유엔 60차 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참석: 10:00 -18:00	뉴욕
3/16 (수)	○ 총회 참석 10:00 -13:00 ○ 전문가 패널: 2030 아젠다의 성인지적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참 석 15:00 - 18:00	뉴욕
3/17 (목)	○ 전문가 패널: 2030 아젠다의 성인지적 실현을 위한 참여와 파트 너십 참석 10:00 -13:00 ○ 전문가 패널: 데이터 격차와 방법론 참석 15:00 - 18:00	뉴욕
3/19 (토)	○ 귀국: 04:30	서울

2

회의내용

가. 총회: 3/14 - 3/15

□ 개회사 이후 각국 대표들의 주제 관련 국가사례 발표가 있었음



사진1: 반기문 사무총장의 3월 14일 개회사에서 인사말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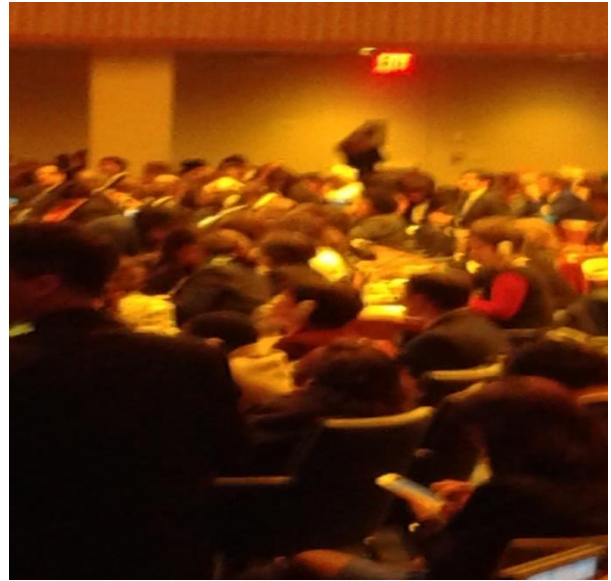


사진2: 여가부 장관 발표 장면(가운데)

나. 전문가 패널 발표문

<세션 1>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문가 패널: 2030 아젠다의 성인지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전략

□ 일시 및 장소: '16. 3. 16.(수) 15:00-17:00, 뉴욕 유엔 본부

□ 참석자:

- 패널리스트: Ms. Alejandra corchuelo(콜롬비아), James Heinz(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Dr. Philomena Efua Nyarko(가나), Ms. Anita Nayar(인도), Ms. Sally Moyle(호주)
- 좌장: Ms. Sejla Durbuovic, 부의장, Bosnia/Hezegovina

□ 상세 내용

- Alejandra Corcuelo: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틀에 있어서의 여성역량강화
 - 성평등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 콜롬비아는 국가 6대 전략 중 하나로 성평등을 선택하였음. 2030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전략과 함께 지역별로 다른 맥락을 고려하는 지역화 전략이 필요함.

- 콜롬비아는 유엔의 2015 이후 전략을 기초로 국가 2014-2018 전략을 수립하였음. 이는 콜롬비아의 지역화된 개발프로그램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부처 간 고위층 지속가능목표 위원회를 수립함. 이는 경제부분 대표자 포함하는 재정차원에서의 정책. 여기서 성평등은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여성과 노동시장, 젠더 기반 폭력, 대표성, 미성년 임신 방지, 돌봄 제도, 농촌/원주민 여성 등의 문제, 격차해소 등을 다루고 있음.

○ James Heinz (매사추세츠 대학): 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시경제 전략; 2030 아젠다의 실행을 위해

-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적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지속가능목표 5조(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넘어서는 것이고 사회에 여러모로 혜택을 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 성평등 조치의 결과는 경제부흥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반대로 성차별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함. 예를 들어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함. 그럼에도 성평등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음. 여성경제활동 자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 이는 단순히 지속가능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성평등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반대로 경제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들은 돌봄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국가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음. 여성의 경제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원의 동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조세정책 등 다양한 거시경제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Philomena Nyarko: 가나의 2030 아젠다의 젠더 차원을 모니터/달성하기 위한 성인지적 데이터와 통계

- 가나는 2030 아젠다의 실행을 위해 고위직 차원의 제도적 조치, 재정구조 혁신, 그리고 국가 통계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나의 새로운 국가 개발 계획은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응하고 있음.
- 양질의 성별 통계 생산은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성불평등 및 젠더 관련 이슈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불가결함. 지속가능목표의 지표 측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의 필요는 도전이자 기회임. 지속가능목표를 위해 300개가 넘는 지표 측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키워야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만족시키기 어려운 책무임. 그럼에도 데이터 혁신, 관심과 자원의 동원을 함으로써 성별 통계를 통해 건전한 정

책결정을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음.

- 가나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성별 분리 통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모든 단계에서 젠더를 고려하여 발전의 지표를 구축하며 통계에 성평등시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함. 재생산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효율적 통계구축을 위한 자원동원에 힘쓰고 개발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함

○ Nayar Anita: 논의 포인트

- 지속가능 아젠다의 세가지 목표는 첫째, 기아를 끝내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 둘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전 지구적으로 구조적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이는 거시경제구조 및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WTO 협상에 따른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이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임. 영세농업인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이들은 이 현상의 피해자임.
- 또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도 기후변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음. 기후조약에서 약속한 지구 기온 2도 강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정책도 중단되어야 함. 그리고 아프리카 등 지역적 연대를 강화해야 함.

○ Sally Moyle: 호주의 성인지적 2030 아젠다 실행

-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가성평등기구의 수립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호주에서는 여성부 장관은 여성이슈의 해결을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하며 특히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기 위해 2013년 총리실로 옮겨감.
- 2030 목표는 호주 국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모니터링할지가 중요한 정책이슈임. 호주에서는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호주에서는 과도한 차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가 여성의 정치, 경제, 정치의 완전한 참여의 전제가 된다고 믿고 있음, 2015년 호주 정부는 1억불의 여성안전 패키지를 조성하였음. 이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4년 호주 대통령과 G20 리더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격차를 25%로 줄이기로 의결하였음. 이는 최소임금제도, 단체협상,

개별적 불만 구제 같은 다른 보상제도와 함께 여성이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스스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권고함. 100명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내의 임금 격차를 조사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짐.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아젠다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함.

<세션 2>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문가 패널(우선 주제):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의 성인지적 실행을 위한 참여와 파트너십

□ **일시 및 장소:** '16. 3. 17.(목) 10:00-13:00, 뉴욕 유엔 본부

□ **참석자:**

- 패널리스트: Ms. Olfa Soukri Cherif(튀니지아, 국회), Ms. Angelina Brown Burke(자메이카), Ms. Emma Kaliya(말라위, Femnet 의장), Ms. Michaela Bergman(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Ms. Rima Khalaf(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좌장: Mr. Jun Saito(부의장, 일본)

□ **상세 내용**

- Olfa Soukri Cherif
 - 다자간 참여와 여성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목표, 그리고 ‘모두 함께 가기(No one left behind)’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튀니지아는 몇 십년 동안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였고 법제도를 갖추었음. 이제 튀니지아는 제도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고 성차별이 없으며 의회에서 의원의 34%가 여성이며 성평등이 논의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중요한 여성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하였음.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성차별 해소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는 실행이 중요한 단계임.
 - 그러나 한편으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남성보다 높으나 여성의 실업률도 여전히 남성보다 높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성평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다자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함. 특히 참여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 평등한 여성참여가 중요함. 국가발전계획에 성평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예산을 확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Angelina Brown Burke: 지속가능발전의 길에서의 모든 성취를 축하하며: “코코넛이 하나, 하나로 껍질 벗겨야 함”

-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참여와 파트너십, 그리고 여성의 참여가 중요함. 자메이카는 이 지역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여성선거권을 부여하였고 70년대 다수의 진보적 여성관련법을 제정하였음.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세력화도 중요한데 자메이카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고 상원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14%임.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있음. 예를 들어 첫 여성 증권거래소장이 나왔음.
- 그러나 분야별로 여성리더십은 분리되어 있고 한 영역에서의 성취가 다른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음. 예를 들어 경제분야에서의 여성리더십이 정치분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경제분야에서 여성은 고위 의사결정직에서 배제되고 있음. 여성이 노동시장의 46%를 구성하지만 여성의 실업률은 높음.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은 높지만 이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로 연결되지 않고 여성과 어린이는 가장 가난한 집단임.
- 지속가능목표와 성평등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지역 정부들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음. 특히 지속가능목표 11조는 지역정부의 참여를 요구함. 지역정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함. 이제 우리는 행동을 서둘러야 함. 이슈를 같은 시각으로 이해하고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이 발표의 제목처럼 하나씩 담은 코코넛이 바구니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야 함.

○ Michaela Bergman: 성평등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에 있어 다자 개발은행의 역할

- 다자은행은 파이낸싱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자 간 개발은행은 공여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공여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므로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다자은행은 국제 조직, 정부,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여러 가지 통로로 이루어지는데 파이낸싱, 고위 정치결정가에 접근, 전략적 파트너십, 우수사례 확산 등의 방법이 있음. 은행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젠더 우선 순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공공-민간 파이낸스 모델, 여성 경제참여 제고 노력, 기업에서의 성평등 책무 등을 고려함. 민간참여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 이 외에 정책대화, 규제, 정책 장애 논의, 성평등 연구지원, 법적 개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역량 강화, 지식 생산과 확산, 평가 연구 등도 강조함. 성별분리통계도 중요함. 비용지원을 언제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여성기업가에게 자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 공여자를 찾아 연결시켜줌으로써 가능함.

○ Emma Kaliya

-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평등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 ‘모두 함께 가기(No one left behind)’의 원칙은 항상 중요함. 아프리카 여성단체의 역할은 여성의 참여를 동원하는 것이고 자원을 동원하는 것임. 지속가능목표에 젠더 목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싱과 모니터링이 중요함. 지속가능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필요로 함. 사회규범 개선, 성별 스테레오타이프 해소, 의사결정에 여성참여, 성평등에 투자, 책무성 강화, 여성 인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참여는 지속목표 달성의 전제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시민단체의 참여가 축소되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은 펀딩의 부족임. 모든 여성, 취약 여성, 농촌 여성, 장애여성들의 인권지원이 필요함. 여성인권 단체의 활약이 필요함. 여성 이슈는 크로스 커팅 이슈임. 지속가능목표의 16조인 평화이슈는 여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성 이슈를 빼고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임. 여성 풀뿌리 단체는 지속가능한 성평등의 진전을 측정할 필요가 있고 여성 단체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에 대해 계속 주장해야 함

○ Rima Khalaf: 2030 아젠다의 성인지적 실행을 위한 새로운 사업방법

- 이 발표는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있어 유엔시스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속가능목표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계가 있고 여성역량강화와 관계됨. 이 아젠다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음.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요구됨. 파트너십은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 아랍 국가에서의 여성 상황은 열악하고 점령상황에서 여성을 구조하는 것은 어려움. 국가 권위의 축소로 인해 파트너십은 한정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목표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유엔은 모니터링, 실행을 강조할 수 있고 정책조언을 할 수 있음. 성평등 국기구도 파트너가 될 수 있음. 유엔은 다자간의 대화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음. 유엔은 의식제고, 캠페인을 하며 대학에서 여성 커리큘럼 개발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우리는 아랍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운동을 제창하였는데 학자, 종교지도자, 정치가, 시민운동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음. 또한 지역의 여성 정치후보 육성, 여성 기업지도자 훈련 등을 하고 있음. 유엔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창조하는데 앞장 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국별로 고위 의사결정자와 여성들의 참여도 중요함

<세션 3>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문가 패널: 데이터 격차와 방법론(평가 주제)

□ 일시 및 장소: '16. 3. 17.(목) 15:00-17:00, 뉴욕 유엔 본부

□ 참석자:

○ 패널리스트: Ms. Francesca Grum(UN통계분과, 사회/가구 통계팀), Dr. Irene Caique Rodriguez(멕시코), Ms. Ainur Dossanova(카자흐스탄)

○ 좌장: Ms. Sejla Durbuovic, 부의장, Bosnia/Hezegovina

□ 상세 내용

○ Francesca Grum: 여성에 대한 폭력 측정: 2030 개발 아젠다의 전지구적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존재, 격차, 그리고 지표들

-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글로벌 지표는 유엔 인터에이전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됨. SDG 틀에서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타겟, 그리고 230개의 지표가 있음. 이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 1년 사이에 심했는지,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폭력이 있었는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성적 폭력이 있었는지,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폭력이 있었는지, 여성성기훼손 발생, 신체적 성추행(성별, 연령, 발생지별), 의도적 살해(성별, 연령별), 인신매매, 18세 이전 성폭력을 담은 젊은 남녀, 20-24세의 여성 중 15세 이전에 결혼 여성
- 데이터는 89개국에서 수집하였고 신체적 폭력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89개국, 친밀한 상대에 의한 성폭력 데이터는 88개국, 모든 상대에 의한 성폭력은 52개국, 심리적 폭력은 71개국, 모든 가해자로부터의 신체 폭력 데이터는 74개국에서 가지고 있음.
- 조사방법은 가구조사로 하였음. 현 데이터의 문제점은 조사 사이의 비교가능성, 추이 비교가능성(국가별로 조사 역사 차이 때문), 가해자가 최근 파트너에 한정하는지의 여부, 재생산 가능 연령의 여성에 한정 여부, 여성 하위 집단 데이터의 존재, 사회별로 조사에 대한 수용성 차이, 그리고 인신매매, 발견된 범죄와 미발견된 범죄 포함 여부 등 다른 형태의 데이터 존재 여부가 국가와 조사별로 다르다는데 있음.
- 통계적 정의, 폭력 형태에 대한 원칙과 개념, 어떻게 조사를 분리(segregation)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함.

○ Irene Rodriguez: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하기: 데이터 원천, 도전과 교훈

- 여성 폭력에 대한 통계 생산은 폭력을 가시화한다는 점과 이것이 여러 여성 문제의 코로스코어링 이슈라는 데서 중요함. 폭력 방지와 해소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가 필요함.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48%가 어떤 형태든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데이터의 원천(source)은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행정, 공공기관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서베이 조사결과임. 행정기록의 이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이용한다는 점이며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음. 반면에 데이터 사이에 일관성이 없으며 성별 등 분리가 부족하고 발생 강도에 대해 분석할 수 없음.
- 설문조사는 다목적 조사와 단일 목적의 조사가 있음. 여성폭력에 대한 시각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폭력만 조사하는 경우와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간주되는 유형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음. 설문조사는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음. 이는 개괄적이고 윤리적, 안전의 문제도 같이 다룬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별로 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조사가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폭력피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들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것인가 하는 등의 윤리적 문제가 있고 조사대상자와 조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 비교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행정기록과 설문조사는 서로 보완적임.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수집은 공공정책의 기본적인 요소임.

○ Ainur Dossanova: 여성에 대한 폭력 서베이 실행에 있어 국가통계청의 역할: 카자흐스탄의 경험

- 여성폭력 해소는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임. 성평등전략(2009-2016)에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수집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여성폭력 조사는 다음의 4단계로 발전되어 옴
 - 1단계: 성인지 통계 개선
 - 2단계: 여성폭력 조사의 모듈 개발
 - 3단계: 가정폭력 모듈 포함
 - 4단계: 여성폭력이라는 단일 목적의 조사 수행
- 지금까지의 교훈은 폭력문제를 직시하기 위한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사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다른 아젠다에 가려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임. 여성폭력과 관련된 국가기구,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상호 전략과 협력이 필요함

III

시사점

- 가.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새천년계획(SDGs)을 끝내고 2030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양성평등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이번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양성평등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의제였음.
- 나. 또한 2013년 57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폭력 주제에 대한 평가도 다루었음. 이는 여성폭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각국에서 여성폭력 데이터의 존재여부,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임.
- 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전지구적 여성이슈를 결정하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각국간의 협력과 조율을 담당하는 곳으로 매년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는 여성이슈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곳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추적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기관에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UN paper smart 사이트가 있어 들어가서 CSW, 다음 statement 혹은 panelist 등을 누르면 국가 대표의 발표나 전문가 패널 발표 등을 문서로 볼 수 있음. 끝.